

[ 사회 ]

인터넷·문자메시지·벨소리·UCC 동영상...

온라인 '수능 응원' 열기

간편하고 쉽게 이용 신세대 몰려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5일 앞두고 수험생에게 보내는 온라인 응원 열기가 뜨겁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5일 앞두고 수험생에게 보내는 온라인 응원 열기가 뜨겁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5일 앞두고 수험생에게 보내는 온라인 응원 열기가 뜨겁다.

취인 만화와 감동이 있는 동영상으로 시험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동생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옛이나 찜썩쩍과 같은 선물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간편하고 부담주지 않게 응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수능 전날에는 인터넷 소풍몰에서 특이한 응원 용품을 사서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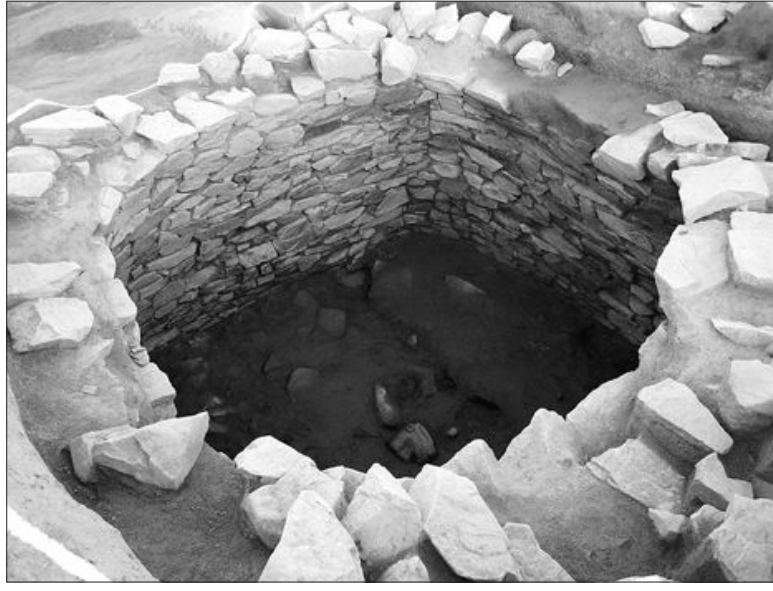
'수능 대학 부작'이나 가수들이 부른 '수능 송(song)' 등을 휴대폰 문자나 벨 소리로 보내는 응원도 인기가

'빅뱅'이나 '슈퍼주니어' 등의 연예인들이 TV프로그램에서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를 다운받아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기도 한다.

일반인이 만든 UCC(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수능응원 동영상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홈쇼핑을 이용해 '수험생을 위한 영양 간식 세트'나 '행운 기원 상품, 졸업방지용품' 등을 골라 보내주기도 한다.

/광탈상기자 kps@kwangju.co.kr



'한성 백제' 거대 지하고분 발굴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에서 발굴된 한성도읍기 말기 거대 지하 백제고분. 무덤방 한쪽에 다각 바깥으로 통하는 무덤길(8.13m)을 별도로 마련한 횡형식석실본인 이곳 KM-016호분은 완전한 지하식 무덤인데다 묘광은 네 변 길이 각각 4.74m에 달하는 최대 3.48m에 이른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에서 발굴된 한성도읍기 말기 거대 지하 백제고분. 무덤방 한쪽에 다각 바깥으로 통하는 무덤길(8.13m)을 별도로 마련한 횡형식석실본인 이곳 KM-016호분은 완전한 지하식 무덤인데다 묘광은 네 변 길이 각각 4.74m에 달하는 최대 3.48m에 이른다.

내일 범국민대회 '긴장'

경찰 "원천 봉쇄"...노동자·농민 "상경 강행"

경찰이 1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007 범국민 행동의 날'(이하 범국민대회) 행사에 대해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라갈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시·군별 출발지·집결지와 고속도로 진입로 및 요금소 등에 18개 중대 1천700여 명을 투입해 이들의 상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민·노동자들은 이날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한미 FTA저지 ▲쌀값보장 ▲농가부채 해결 촉구 ▲비정규직 철폐 ▲반전 평화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행정부·법부·노동부·건교부 장관 공동 명의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행위를 야기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피해와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야 한다"며 불법 집회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에서도 농민회·진보연대·민주노총 회원 등 1만3천 명이 상경할 계획이며, 경찰이 제지하면 고속도로 점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민회는 22개 시·군별 상경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2천여 명도 10일 오후부터 광주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집결해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시·군별 출발지·집결지와 고속도로 진입로 및 요금소 등에 18개 중대 1천700여 명을 투입해 이들의 상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에서도 농민회·진보연대·민주노총 회원 등 1만3천 명이 상경할 계획이며, 경찰이 제지하면 고속도로 점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행정부·법부·노동부·건교부 장관 공동 명의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행위를 야기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피해와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야 한다"며 불법 집회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시험 감독 교사들에 짙은 화장·하이힐 금지령

교육부 "협조 해달라"

교육부가 대책을 강구중이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당일 감독관의 '짙은 화장'과 하이힐 착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화장을 짙게 하고 고사장에 들어오는 일부 수능 감독교사들의 '화장품 냄새'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데 방해가 된다

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또 일부 감독 교사들의 경우 하이힐을 신고 들어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뚜각뚜각'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수험생 등의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시험 당일 감독 교사들에게 '짙은 화장'을 자제하고 가급적 하이힐 등은 신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 사항을 전달기도 했다.

/연합뉴스

"소방공무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해야"

광주·전남 73%가 24시간 맞교대 근무

'제 45주년 소방의 날'인 9일 광주·전남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주 40시간(주5일)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소방공무원들은 '주 84시간 근무'하고 있다.

광주·전남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소방공무원은 광주가 826명, 전남도가 1천559명이며 이중 73%에 달하는 1천750명(광주 524명·전남 1천226명)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소방공무원 3만199명의 격일제 근무비율(67%)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소방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시간 보장 ▲인력증원을 통한 1일 3교대 근무실시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한 소방공무원 단결권(직장협의회 구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3교대에서 4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고 있는 경찰에 비해 소방의 3교대 근무자는 광주가 100명, 전남에는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교육직 공무원이 70세로 가장 높았고 ▲일반직 65.6세 ▲경찰직 65.0세 ▲기능직 64.4세 등이었

다. 반면 소방직은 62.8세로 전체 공무원 중 평균수명이 가장 짧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두산 핵심기술 빼들린 STX 사장·상무 구속

서울중앙지검 참판범죄수사부(이재영 부장검사)는 9일 두산중공업에서 일할 당시 갖고 있던 기술 및 영업상 비밀자료를 빼들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사료를 사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참판범죄수사부(이재영 부장검사)는 9일 두산중공업에서 일할 당시 갖고 있던 기술 및 영업상 비밀자료를 빼들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사료를 사용한 혐의로(부여회 회계장보경유) 등 11명(11월11일)을 기소했다. 이 중 STX중공업 산업플랜트부 사장 구모(61)씨와 발전본부장 김모(54.상무) 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차상위 난치성 질환자 건강보험 전환 제도 사업비 전액 삭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면 정부 정책이 무산될 전망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08년도 복지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내년에 건강보

험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편성된 688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의료급여 사업으로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면서 국가차별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천36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면서 국가차별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천36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측

▲윤재문(전 광주일보 국장)씨 차남 주호(국방부 법무관)군 이춘교(경북 울진경찰서 경무과장)씨 딸 선녀(울산지검 검사)양=10일(토) 오후 1시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예식장 4층 무궁화홀.

▲김선남(광남일보 부사장)씨 장남 현석(KTT 주임)군 김용일씨 차녀 숙현(SK텔레콤)양=10일(토) 오후 1시30분 오레라하우스 1층 특실.

▲박찬복씨 장남 원택(조선대 홍보팀)군 전병채씨 장녀 선혜(염주초교 교사)양=11일(일) 오후 1시40분 에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김동필(광주 보건대 교수)씨 장남 학준군 서의부씨 차녀 영경양=11일(일) 오후 2시20분 에벌루션웨딩컨벤션 1층 세이저홀.

▲박영수씨 막내 환필군 최중문씨 5녀 정화양=10일(토) 오전 11시50분 삼영웨딩홀 3층 다이아몬드홀.

▲이희봉씨 장남 수호군 장영택(전 농협 전남도 본부장)씨 차녀 수미양=10일(토) 오후 1시 에벌루션웨딩컨벤션 1층 세이저홀.

▲차주열(대전전통건설협회 광주시회장)씨 장남 호길(대우 인터내셔널 대리)군 현은씨 차녀 강희양(서울 사근초교 교사)양=10일(토) 오후 1시30분 무등

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유지승(전남도청 보건방과장)씨 장남 일현군 전혜진씨 8녀 남희양=11일(일) 오전 11시 10분 에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오정호(비노기과 의원장)씨 차남 삼민(삼성 광주전주군 배훈자씨 장녀 김현선(일여학원 강사)양)=11일(일) 오후 1시20분 오레라하우스 1층 특실.

부음

▲신금순씨 별세 정정룡(전남 매일 논설위원)씨 모친상 조필정(장성군 장성읍사무소)씨 시모상 조장수(사업)·박병룡(사업)·고길영(살비업)씨 부모상=발인 11일(일) 장성군 장성장례식장 2분향소. 061-394-0444

▲이승재씨 별세 중만(개인택시)·종태(자영업)·종화(광주산업)씨 부친상 김영준씨 방부상=발인 11일(일) 금호장례식장 401호. 227-4000

▲민화영씨 별세 이용석(동강대 사무처장)씨 상배 명재·준재(광주체육교)·선재·혁재·경순씨 모친상 박용균씨 방모상=발인 10일(토) 삼우병원 장례식장 특실. 600-7400

▲이재열씨 별세 대진(KIA타이거즈 투수)·대혁(한국일보 기자)·현정씨 부친상=발인 10일(토) 한국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528-4444

▲강남수씨 별세 철(남하토건)씨 부친상 정동길·이구연·이중우씨 방부상=발인 10일(토) 금호장례식장 101호. 227-4000

생활안내

Table with columns for '교통안내' (Transportation), '상담' (Consultation), and '신고' (Newspaper).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areas.

인사

◆광주시 (전보) ◇4급 ▲세정담당관 정형선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담당 임근현 ▲마케팅기획팀장 정민곤 ▲대중교통과장 이병철 ▲문화예술회관장 이춘배 ▲남구 국장요원 황이두

공시 최고 사 전 2007카공30 신원인 김관수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218-8

최후배 당 공 고 2003하합 46 파산선고 파산자: 주식회사 리안주택 전남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491-5

산행안내 11월 11일(일) ▲나시모신우회 전남 강진 주석사 11월11일(일) 06시30분 열주차출발

11월 13일(화) ▲광천신학회 무주 적삼산 11월13일(화) 07시40분 광천파출소4차출발

H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모집 현대해상에서 이런 분을 모십니다. ■ 직장 경험이 있는 퇴직자 ■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